



자기를 돌아보고 하심을 배우는 108배.

숲 속에 가니 부처님이 계시네

부산 흥법사 '숲속 명상학교'

숲 속에 가면 부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호기심 가득한 의문을 품고 부산 신장봉원 흥법사(주지 심산)에 아이들이 몰려들었다.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린 제3회 흥법사 숲속의 명상학교에 참가한 230명의 초등부 어린이들은 도량 곳곳을 누비며 '불성(佛性)'이라는 보물을 찾아 다녔다.

1만 2천 평에 달하는 능원, 2막 3일 동안 아이들은 도량 곳곳에 퍼져있는 연꽃, 새와 사슴 모양으로 조각된 정원수, 풀과 꽃들을 친구 삼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몸에 익혔다.

예배, 응공, 정병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세존, 부처님의 심대 명호를 불러 나눠진 10개 반의 아이들이 노란 티셔츠를 입고 선생님을 따라 숲 속을 걸으며 오가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아이들이 찾아가는 숲 속에는 단주 만들기, 108배, 인형극, 목탁습득, 찬불가와 율동, 설화 등이 준비돼 있다.

선생(善逝)반 아이들이 숨겨 놓은 보물찾기를 하듯 찾아간 느티나무 숲 그늘에는 찬불가와 율동이 기다리고 있었다. "친구를 따라 짚어 갔었네~♪♪ 낮 설은 길가 설레는 마음~♪♪"

선생님의 선창을 따라 아이들 노래 소리가 느티나무 그늘에 울려 퍼졌다. 찬불가 배우기에서만 스티커 18장을 늘린 선생반 아이들은 목탁 습득을 향해 출발!

같은 시각, 관음전에서는 여래반이 참선 삼매에 푹 빠져있었다. 마당에서 진행된 선무도 시간에도 제법 동작을 잘 따라 하던 준우는 다섯 살 어린 나이지만 반가

부좌를 하고 눈을 반쯤 감고 있었다.

'야단법석'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에서 10개 반 아이들은 10개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경험하며 그 재미를 더했다.

염주 만들기를 하던 수원(김혜·신어) 초등 3이는 "염자가 억지로 보내서 왔는데 프로그램이 너무 재미있었다"며 "이제 스스로 짚에 다니고 싶어졌다"고 말했다.

환경화 대표 교사의 인솔로 25명의 지도교사들이 아이들과 함께 한 2박3일의 흥법사 여름 숲속 명상학교에서는 사찰 예절, 예불, 참선, 108배의 수행적 요소와 별자리 관찰, 선무도, 송정 해수욕장 물놀이, 담력 훈련, 포돌이 공연단 등 놀이적 요소를 보태며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놀이와 수행을 경계없이 넘나들며 보낸 2막 3일 동안 아이들은 달라져 갔다. 가장 큰 변화는 음식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불교설화를 듣고 난 뒤부터 밥을 남기는 아이가 없어졌다는 것.

환경화 대표 교사는 "아이들의 변화가 빠르게 느껴져 보람 있다"며 "나무 그늘에 앉아 들었던 부처님 이야기, 또 잠시 경험했던 참선, 목탁, 반야심경 등이 아이들을 더 깊은 불법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인연의 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산 스님은 이번 숲속의 명상학교에서는 특별히 가족 캠프파이어 시간을 마련했다. "아이만의 불교가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하는 불교"를 위해서다. 25일 밤에는 아이들과 학부모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족 축제가 밤하늘을 수놓았다.

글/사진·부산=천미희 기자



진흙속에 숨은 바닷게를 살피고 있다.



망원경으로 갯벌에 내려앉은 갯이갈매기를 보는 아이들.



하루종일 보고 배운 것을 발표하기 위해 공책에 정리하고 있다.

갯벌에서 느끼는 '생명의 크기'

♯ 불교환경연대 '어린이 불교생태학교'

7월 23~25일 서산 부석사(주지 주경)에는 자연 속에서 생명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배우는 학교가 문을 열었다. 불교환경연대가 마련한 '어린이 불교생태학교'.

1교시는 자연 시간. 부석사 주변 생태환경 배운다. 일일 교사로 나선 원우 스님(부석사 원주)이 재미있는 이야기로 수업을 시작했다.

"늑대 거미를 본 사람 있어요? 늑대 거미는 늑대일까 거미일까?" 늑대 같기도 하고 거미 같기도 하다. "늑대 거미는 거미집을 안 만드는 거미 하나예요. 늑대처럼 숨었다가 먹이를 덮친다고 그런 이름이 붙은 거죠. 겁먹지는 말아요. 아주 작으니까." 아이들은 그제야 이해가 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산 속을 뛰어다니다 보면 숲은 아이들에게 '커다란 책'이 되고, 나뭇잎 사이를 뛰어다니는 벌레는 '글씨'가 된다. 모두가 도시 생활에서 경험하기 힘든 것들이다. 책 속에서 보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직접 살펴보고 만지다 보면 숲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품고 있는지 알게 된다. "노란 딱따구리가 살려면 큰 느티나무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죽은 나무, 버려진 등걸도 필요하죠. 죽은 나무에는 딱따구리의 먹이인 유충과 개미가 살지요. 모든 게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내가 살면 내가 살고, 내가 죽으면 나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옆에 앉은 친구들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빛이 진지하다. "잘 생긴 것, 못 생긴 것 모두가 필요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잘 하는 사람, 잘 생긴 사람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2교시는 미술 시간. 천연 염색 손수건을 만들어 본다. 흰 형질을 포개 안쪽에 진달래 꽃, 속, 원추리 잎을 가지런히 배열하고 수저로 두드려 염색을 한다. 조급식 잔액들이 스며 나오자 손수건은 알

록달록한 색깔로 물들이기 시작했다. "어? 그런데 이게 뭐지? 나뭇잎이 어디로 가버렸지?" 세월(8)이가 너무 세계 풀잎을 두드린 모양이다. 아이들은 어느새 자연스러움 그 자체가 아름다움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었다.

3교시는 체육시간. 운동장은 부석사 앞 갯벌이다. 갯벌에 뒹굴고 뛰어다니며 이것 저것을 찾는다. 바위 밑을 뒤지던 경미(8)와 혜인(8)가 갑자기 말다툼을 한다. 정현이는 "방개"라고 주장하고, 지연이는 "꽃개"라고 우긴다. 그러다가 "털개"라는 원우 스님의 대답을 듣고 "모두 틀렸네"라며 웃는다.

3교시가 끝난 후에는 간식으로 감자와 수박을 먹었다. 평소 감자를 잘 먹지 않는 아이들이지만 갯벌을 뛰어다니느라 감자맛이 꿀맛이었다.

4교시는 발표시간. 갯벌에서 발견한 것들의 이름을 알아서 그리고 발표하는 시간이다. 처음 본 바닷가 동물이 잘 구별되지 않는다. 동그렇게 생긴 것은 홍합일까 따개비일까? 가웃 가웃. 그런데 공통점이 있다. 모든 생물이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창희(9)는 "전에는 게는 모두 그냥 시장에서 사다 먹는 것이잖아. 네가 네 이름을 가지고 있네요"라고 말한다.

태환(12)이도 오늘 배운 것을 발표한다. "그림을 그리다보니 모두 주변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었어요. 따개비와 홍합은 함께 살고요. 말미잘은 바위 턱에 그늘 밑에 살아요. 꼭 우리가 얼마 아빠의 도움을 받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 사는 것처럼요. 앞으로는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불교환경연대의 어린이 불교생태학교. 참가한 40여명 지도교사와 학생들은 자연이라는 '커다란 교실'에서 자연과 하나가 됐다.

서산=강유신 기자·사진=박재원 기자

자연은 커다란 학교



율동과 찬불가를 배우는 어린이들.



원우 스님의 지도로 선무도를 배운다.



어린이들이 가족캠프 파이어 시간에 부모님을 초청해 '장기자랑'을 선보인다.



서산 부석사 앞 복리 갯벌의 아이들. 마음껏 뛰어다니며 자연속의 지혜를 배운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도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기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대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호로 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